

# 4년 전 맞대결 재연... 성신여대 '2위 총장' 논란 다시 고개

### 이성근·성효용 교수 재격돌 2022년 투표 1위 아닌 2위 선임 직선제에도 이사회 최종 결정 선임기준·절차공개 요구 커질 듯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선거가 4년 만의 '재격돌'로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불거진 '2위 총장'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맞붙었던 두 후보가 다시 출마했고 최종 선임 구조 역시 4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제13대 총장 선거는 오는 12일 실시되며, 이번 선거에는 총장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근 경영학과 교수와 성효용 경제학과 교수가 후보했다.

두 후보는 2022년 제12대 총장 선거에서 맞붙은 바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구성원 투표 1순위 후보인 성 교수가 아닌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선임됐다. 선거보다 최종 선임 방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성신여대는 2018년 학내 구성원 전체



성신여대 제13대 총장 선거 후보자 포스터가 교내에 게시된 모습. /성신여대 교육방송국 SEBS 유튜브 캡처

가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 결과 상위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1인을 선임하는 구조다. 구성원 투표 결과와 이사회 결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선제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 2022년 선거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 결선투표에서 성 교수가 50.2%를 얻어 49.8%를 얻

은 이 교수를 0.4%포인트(p) 차로 앞서며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는 사전 조건 발표와 면접 등을 거쳐 2위였던 이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들은 구성원 총의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일각에선 직선제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 영향력이 과도하다”며 1위 득표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구성원 투표 결과와 이사회 선임권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면, 최종 선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구성원 투표에서 1순위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면 이사회는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오히려 1·2순위를 드러내지 않고 두 명의 후보만을 놓고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지, 그 기준과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구성원도 문제 삼기 어렵다”며 “밀실 논의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절차 공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예외적 접근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번은 과거 1위 후보와 현 총장이 다시 맞붙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미 구성원 신뢰가 낮

다”며 “이번만큼은 1순위를 선임하는 방식 등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약 2순위를 선임할 경우에는 1순위 후보의 문제나 결격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성신학원 측은 현행 절차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신학원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면접하고 각자의 의결권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며 “현재로서 별도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학내에서는 구성원 의견 반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성신여대 한 재학생은 “직선제가 실시됐음에도 구성원 투표 결과가 최종 선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 의견이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고양시, 'IR데이'로 스타트업 성장 지원

### 창업오디션 참가기업 모집

고양시가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6 창업오디션, 고양 IR데이' 참가기업 모집에 나선다.

고양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 고양 IR데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양시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용사인 탭엔젤파트너스가 운영한다.

'고양 IR데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투자 심사역과 직접 연결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1·2차 IR데이

에 참여할 총 14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7개 기업씩 선정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다. 고양시 소재 기업뿐 아니라 선정 후 1년 이내 고양시에 본사, 지점, 부설연구소,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IR데이 개최 전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최근 창업 생태계와 투자 동향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기업 진단과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1대1 컨설팅, IR 스토리라인 구성 및 발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50년 묶인 미아7구역, 525세대 단지 탈바꿈

### 서울 마지막 자력재개발구역 신동기획 통해 합동재개발 전환 최고 23층 열린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가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한계는 보완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최고 23층·525세대 규모의 열린 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미아7구역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지(2만 5215.4㎡)는 지난 50년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자력재개발을 제외한 어떠한 개발 행위도 진행할 수 없었던 지역이다. 현재는 한지에 정지로 일부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을 마쳤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주민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유지되는 등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미아7구역은 1973년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이후 1975

년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지정, 1978년 사업계획 결정, 1995년 환지 방식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거친 지역이다. 자력재개발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방식으로,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주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계획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단지 계획 ▲생활 클러스터 계획 ▲가로 활성화 계획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1 | 해질 / 19:27

**5월 7일 (목)**  
음력 : 3월 21일

**수도권 날씨**  
12 ~ 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0/18, 동두천 11/19, 가평 9/20, 파주 10/18, 서울 12/19, 양평 10/21, 인천 13/18, 수원 12/19, 용인 12/19, 평택 10/21, 백령도 11/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인천시, '공간지능 AI 도시' 구축 속도

### 산업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선정

인천광역시 미래 국가 대형 R&D 사업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공간지능 AI 도시'로 구축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인천시가 산업부의 3,026억 원 규모 '2026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3D 공간지능' 분야에 선정되어,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해 국민대, 호서대, ㈜엘컴텍, ㈜아이지온 등과 협력한다.

시는 8년간 250억 원을 들여 로봇과 자

율주행차가 보내온 센서 정보로 도시의 3D 지도를 스스로 만들고 재난을 예측하는 AI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초지능형 미래 도시 구축,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과제에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 도시 실험을 진행, 공간 생성 및 예측 AI 기술을 향한, 산업 단지, 구도심과 신도시 등 인천의 복잡한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해, 조만간 수행기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인천시가 지난해 말



인천시청 전경.

수립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전략적 성과로, 국가 R&D 참여로 시의 역점 사업인 ima 플랫폼 고도화 '와 3D 도시 모델 구축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국비로 확보하는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인천=이숙영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중국, 쿠바 제재 강화 나선 미국에 “협박과 강압 즉각 중단하라”
- ▲우크라이나,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인근 공격... 김정은 방위도 “빨간 불” /사진 뉴시스

- ▲일본 총리·방위상, 연휴 기간 인도태평양 순방... 중국 견제 강화
- ▲유럽연합, 트럼프 후 관세 인상 위협에 “약속은 약속... 합의 지켜라”

- ▲트럼프, 교황과 또 갈등... “이란 핵보유 옹호” vs “휴전 촉구, 평화 전파”
- ▲이란 대통령, “이라크는 형제... 미국의 압박·협상 동시 요구는 모순”